

부모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 통제신념과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

김 윤 희

영동세브란스병원

황 순 택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지각된 부모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아동의 갈등통제 신념과 자아탄력성이 중재변인으로 작용하는지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3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CPIC; 부모 갈등의 강도, 갈등대처 효율성, 아동에게 지각된 위협감, 아동의 자기비난, 아동의 부적응 수준(KPI-C;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 아동의 갈등통제 신념(DCCQ; 직접적 통제와 감정통제), 그리고 자아탄력성(CCQ; 자아탄력성 척도)을 측정하였다. 아동에게 지각된 부모갈등과 그에 따른 아동의 부적응 문제 그리고 중재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이들 변인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모형에 대해서는 R^2 의 차이검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1) 부모 갈등에 대한 아동의 직접적 통제와 대처효율성의 상호작용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직접적 통제와 자기비난의 상호작용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이를 세분화해서 분석해본 결과 대처효율성이 증가할 때 직접적 통제 저 집단인 경우 내재화 문제에 변화가 없었으나, 직접적 통제 고 집단인 경우에는 내재화 문제가 증가하였다. 또, 자기비난이 증가할 때 직접적 통제 저 집단인 경우 외현화 문제에 변화가 없었으나, 직접적 통제 고 집단은 외현화 문제가 증가하였다. 2) 부모갈등에 대한 아동의 감정통제와 대처효율성의 상호작용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감정통제와 자기비난의 상호작용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이를 세분화해서 분석해본 결과 대처효율성이 증가할 때 감정통제 저 집단에서는 내재화 문제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으나 감정통제 고 집단은 내재화 문제가 증가하였다. 또, 자기비난이 증가할 때 두 집단 다 외현화 문제의 증가를 보였으나 감정통제 저 집단에 비해 감정통제 고 집단에서 더 큰 증가를 보였다. 3) 자아탄력성과 갈등 강도의 상호작용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과 지각된 위협의 상호작용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부모갈등의 강도가 증가할 때 자아탄력성 고 집단과 자아탄력성 저 집단 모두에서 외현화 문제가 증가하였으나, 자아탄력성 저 집단이 자아탄력성 고 집단에 비해서 더 높은 증가를 보였다. 또, 지각된 위협이 증가할 때 자아탄력성 저 집단은 외현화 문제가 뚜렷하게 증가했으나, 자아탄력성 고 집단은 외현화 문제의 증가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부적응 수준은 부모갈등의 특성뿐 아니라 아동의 갈등통제 신념, 자아탄력성을 포함하는 중재변인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요어 : 부모갈등,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통제신념, 자아탄력성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 윤 희 / 영동세브란스 정신과 임상심리실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FAX : 02-3497-2384 / E-mail : tourette@hanmail.net

부모간의 갈등은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협하는 주요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한다. 부모간의 갈등으로 인해 아동이 행동적 또는 정서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은 화목한 가정의 아동에 비해 2-5배 가량 높다는 연구결과(Richman, Steavenson, & Graham, 1982; Rutter, Yule, Quinton, Rowland, & Berger, 1975)는 가정내의 갈등상황이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Jenkins와 Smith(1990)는 부모간의 다양한 상호관계변인과 아동의 부적응 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모 갈등이 아동의 정서와 행동 문제를 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부모의 갈등과 불만족을 비롯한 불화적인 요소(Kerig, 1998)가 아동에게 주요한 스트레스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부모 갈등으로 인한 아동의 반응은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부모갈등과 관련된 어떤 요인이 어떻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모갈등은 아동의 부적응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Grych & Fincham, 1990; Kelly, 1998). 직접적인 영향이란 부모갈등이 모델링과 스트레스원으로서 작용하여 아동의 부적응에 직접 작용하는 부분을 지칭하며, 간접적인 영향은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처럼 우회적으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말한다. 아동이 사회적 행동을 습득하게 되는 과정은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3, 1977)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은 부모갈등과 아동의 부적응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부모갈등에서의 모델링의 역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Cummings, Ballard, El-Sheikh, & Lake, 1991; Grych & Fincham, 1990). 즉, 모델링은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정보 습득의 역할을 하며, 또한, 아동의 행동에 탈억제

(disinhibition) 현상을 일으켜 공격적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모델링 가설에 입각하여 Johnson과 O'Leary(1987)는 아동에게 지각되는 부모 갈등 행위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임상집단 여아와 그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 정상 통제집단 여아의 부모를 비교한 결과 품행장애 여아를 둔 부모가 더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특히, 이 연구결과는 부부가 지각하는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감이나 은폐된 갈등보다는 부모간의 갈등표출 행동에 직접 노출되는 것이 아동의 부적응 문제와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동에게 있어 부모간의 갈등은 가장 심각하고 강력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한다. 2세 미만의 유아들조차 부모의 적대적인 상호작용을 관찰하면 심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한다(Dunn & Munn, 1985). 그러나 부모간의 분노 상황에서 아동의 대처능력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강력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아동이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잘 습득하였다면 빠른 적응을 보이지만, 적절하지 못한 대처방식을 습득하였다면 철수나 공격행동 등 미성숙하고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Spielberger, 1979). 또한, 갈등상황에서 교환되는 부모의 갈등 특성에 따라 아동이 보이는 대처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 갈등 상황에서 부부간에 교류되는 분노 표현과 신체적 공격을 포함한 갈등의 강도가 증가하는 경우(Cummings, Pellegrini, Notarius, & Cummings, 1989), 그리고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Rossmann & Rosenberg, 1992) 아동은 보다 많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부모갈등이 아동에게 모델링과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부모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 또한 심리적 부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부모의 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인지-맥락 모델(Cognitive-Contextual model; Bradbury & Fincham, 1989; Cummings et al., 1989; Grych & Fincham, 1990)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부모갈등의 빈도, 강도, 내용, 해결방안과 같은 부모갈등의 개인적 중요도(significance)와 갈등의 의미(meaning)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같은 인지요인이 아동의 부적응에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또한 부모의 갈등을 이해하고자 하는 아동의 노력과 반응에 주목하였으며 부모간의 갈등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아동의 역할과 인지능력, 발달수준에 따른 갈등의 평가와 같은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아동이 인식하는 부모 갈등이 더 빈번하고, 강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자신과 관련된(child-related) 내용일 때 아동이 보다 부적응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Cummings & Davies, 1994; Grych, Seid, & Fincham, 1992; Kerig, 1998; Osborne & Fincham, 1996). 부모 갈등이 아동에게 위협적으로 지각되고, 자기 비난감을 유발하게 될 때 분노, 슬픔, 근심, 수치심 등의 정서적인 반응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Grych & Fincham, 1993)도 아동의 인지요인이 적응에 중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부모의 다양한 갈등상황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갈등상황에 대한 아동의 지각 뿐 아니라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능력 또는 자아탄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모의 갈등상황에서 아동이 갈등을 제지하려는 시도를 통해 자신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부모의 갈등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자신감을 경험하게 되어, 이러한 경험이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부모가 상대방의 의견을 주의깊게 경청하고 수용하며 해결방안을 도출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문제해

결에 관한 긍정적인 모델링이 이루어져 효과적인 문제해결 기술을 학습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부모의 갈등과 가정 폭력, 이혼을 포함한 가족 내부의 심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또는 행동적 장애 없이 잘 적응해 가는 아동들도 있다(Block & Block, 1980).

일반적으로 갈등상황과 같은 스트레스 환경은 아동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경험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 사이에는 많은 중재요인이 존재한다. 연령, 성(gender), 사회경제적 지위(Garmezy, Masten, & Tellegen, 1984), 사회적 지지(Sandler, Wolchick, & Braver, 1985), 문제해결 기술(Compas, 1987), 일반 지능(Garmezy et al., 1984; Masten, Garmezy, Tellegen, Pellegrini, Larkin, & Larsen 1988),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대처능력(Wertlieb, Weigel, & Feldstein, 1989), 통제신념(Band & Weisz, 1988), 자아탄력성(Neighbors, Forehand, & McVicar, 1993) 등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중재요인이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통제신념과 자아탄력성의 역할에 관심을 가졌다.

부모의 갈등상황과 관련된 아동의 통제신념에는 다툼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툼이 종결된 후에는 화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지, 보다 과격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아동 자신의 인지적 신념이 포함된다(Rossmann & Rosenberg, 1992). 통제신념은 실제 부모갈등에서의 직접적인 통제 여부를 떠나 스트레스 상황이 아동에게 전달된 것이며, 긍정적인 적응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삶에서 잠시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느끼도록 한다(Thompson, 1981). 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실제로 많은 아동들은 부모의 다툼을 발견하면 이를 중재하기 위한 개입을 시도한다. Jenkins, Smith와 Graham

(1989)의 연구에서 9세에서 12세에 속하는 아동의 70%가 부모의 다툼에 개입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부모의 갈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아동의 내적 통제신념은 아동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하고, 자신이 부모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여 아동의 부적응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몇몇 경험적 연구에서 이러한 통제신념의 스트레스 중재 효과가 확인되었다(Compas, 1987; Connell, 1985; Cohen, Burt & Bjork, 1987). 다만,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이 부모의 갈등 통제에 효과를 미치지 못할 때 이에 대한 자신감이 저하되면서 오히려 부적응적인 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Jenkins et al., 1989; Rossman & Rosenberg, 1992).

통제신념에는 직접적 통제와 감정통제가 포함된다(Rossman & Rosenberg, 1992). 직접적 통제란 부모의 갈등 상황에서 아동이 부모의 언쟁이나 다툼을 멈추려는 직접적인 시도를 하거나 다툼이 끝난 이후 부모를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감정통제란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분위기로 인한 불안감, 공포, 상실감, 슬픔 등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정한 정서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부모갈등에 따른 원인이나 책임을 아동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서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지속함을 의미한다.

한편,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이란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역경 혹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행동적 및 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해 가는 아동들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으로(Block, 1980; Block & Gjerde, 1990; Perry, Pollard, Blakley, Baker, & Vigilante, 1995), 개인이 환경의 요구에 따라 긴장을 인내하고 충동통제의 강약을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낮설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며, 과제 해결을 위해 충동을 조절하는 행동적인 특징을 보인다(Funder & Block, 1989; Mischel, Shoda & Peake, 1988).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융통성이 없어 상황의 역동적인 요구에 반응하지 못한다. 그들은 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쉽게 좌절하고, 외상을 경험한 후 적응상의 어려움을 보이며(Block & Gjerde, 1990), 심한 경우 지속적인 정신과적 장애를 보일 수도 있다(Garmezy, 1991).

여러 연구자들(Neighbors et al., 1993; Emery & Forehand, 1993; Luthar & Zigler, 1991)은 부모갈등이라는 역경적인 상황에서도 심리적 안정과 성공적인 적응을 보이는 아동을 이해하기 위해 부모갈등과 자녀의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Neighbors 등(1993)은 높은 부모갈등 수준에도 불구하고 자아탄력 집단의 청소년은 경미한 수준의 스트레스만 경험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부적응을 완전히 차단해주는 것만은 아니어서 Luthar(1991), Luthar와 Zigler(1991) 등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도 부모의 갈등을 포함한 높은 스트레스 환경에서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증상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부모의 갈등에 따른 아동의 반응에 대해 다양한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비교적 최근이며, 특히 부모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평가, 통제신념, 자아탄력성 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부모 갈등에 대한 아동의 통제신념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갈등과 아동의 부적응간에 중재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및 절차

연구 참가자

청주시 소재 3곳의 초등학교 4, 5, 6학년생 375명과 그들의 학부모에게 아동이 직접 작성하는 검사와 부모용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지의 배포와 회수는 일선 담임교사들에게 요청하였다. 먼저, 아동 피험자는 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아동용 검사지인 CPIC와 DCCQ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보호자용 검사지는 아동이 가정으로 가져가 보호자로 하여금 작성해오도록 하였다. 보호자용 검사지는 KPI-C 검사지와 CCQ 자아탄력성 척도로 구성되었다. 자료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반응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61명을 제외한 314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자료가 분석된 연구 참가자들의 성비는 남아 144명(45.9%), 여아 170명(54.1%), 연령은 만 9세 9명(2.9%), 10세 80명(25.5%), 11세 120명(38.2%), 12세 10명(3.2%), 13세 4명(1.3%)이었다.

도구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 질문지 (CPIC)

자녀가 관찰한 부모갈등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 질문지(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Questionnaire, CPIC; Grych et al., 1992)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가 말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아동에게 지각되는 부모갈등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3점 척도, 6개 영역,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한국판 CPIC 타당화 연구에 사용한 문항들 중 안정성 차원과 삼각관계 영역을 제외한 40문항만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모 갈등의 특성에 따라

1) 부모 갈등의 강도, 2) 부모 갈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아동의 자기-비난(self-blame), 3) 부모 갈등으로 인해 아동에게 지각된 위협, 4)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효율성 등 4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서는 전체 .90, 갈등의 강도 .89, 자기-비난 .71, 지각된 위협 .67, 대처효율성 .69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가 각각 산출되어 대체로 양호한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아동인성검사(KPI-C)

한국아동인성검사(Korean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KPI-C, 김승태, 김지혜, 송동호, 이효경, 주영희, 홍창희, 황순택, 1997)는 임상장면에서 아동의 정신과적인 문제를 선별진단하고 학교장면에서 심리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 검사이다. KPI-C는 아동의 인지, 정서, 행동의 중요한 측면을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으며, 정신과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아동의 인지, 정서, 행동 상태를 다차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도구이다. 예, 아니오로 답하게 되어 있는 255 문항 16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6개 척도는 4개의 타당도척도와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적응 잠재력을 측정하는 자아탄력성 척도 그리고 발달, 정서, 행동, 대인관계, 현실접촉 영역에서 아동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측정하는 11개의 임상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갈등을 경험하는 아동의 정서(우울, 불안, 신체화 등의 내재화 문제)와 행동(비행, 과잉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상의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내재화 문제는 우울척도, 불안척도, 신체화척도의 T 값의 평균으로, 외현화 문제는 비행척도와 과잉행동척도 T 값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부모갈등의 통제와 대처 질문지 (DCCQ)

부모갈등의 통제와 대처 질문지(Discord Control & Copying Questionnaire, DCCQ; Rossman & Rosenberg, 1992)는 부모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아동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측정하는 23문항의 강제 선택형 질문지로, 아동이 생각하기에 부모간 갈등을 아동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지를 예, 아니오로 답하게 되어 있다. 문항을 구성하는 내용은 부모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통제 가능한지(direct control)와 부모의 언쟁 시에 아동이 자신의 기분을 다스릴 수 있는지(self-calming)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71이었으며, 직접적 통제 척도는 .63, 정서통제 척도는 .47이었다.

CCQ 자아탄력성척도

이 척도는 구형모와 황순택(2001)이 California Child Q-Set(CCQ; Block, & Block, 1980)을 모태로 하여 구성한 것이다. CCQ는 성인용인 California Adult Q-Set(Block, 1978)을 연령에 맞게 수정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의 행동, 정서, 인지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기술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이다. CCQ 자아탄력성척도는 보호자가 아동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굉장히 그렇다’(9)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85로,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결 과

갈등 통제신념에 따른 부모갈등과 아동의 부적응

직접적 통제

부모갈등 하에서 아동이 갈등에 직접 개입함으

로써 갈등 상황을 통제하는(직접적 통제) 정도가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KPI-C의 임상척도에서 유도된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CPIC에서 유도된 갈등의 강도, 자기비난, 지각된 위협, 대처효율성 4개 변인과 직접적 통제를 독립변인으로 한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추가모형은 기본모형에 CPIC에서 유도된 4개 변인 각각과 직접적 통제간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시킨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두 모형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본모형과 추가모형의 R^2 (설명력)을 산출한 뒤에 R^2 의 증가량이 유의미한지 살펴보았다. 여기서, R^2 의 증가량이 유의미하다는 것은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이고, 중재변인이 부모갈등과 아동의 부적응 수준 간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R^2 의 증가량이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F 검증을 이용하였다(Cohen & Cohen, 1983).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중재변인의 조절 효과가 검증된 모형을 대상으로 조절효과의 방향성을 검증하였다. 조절효과의 방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재변인의 수준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 각 집단에 대하여 아동의 부적응(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부모갈등을 종속변인으로 한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후 R^2 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표 1). 부모 갈등에 대한 아동의 직접적 통제와 대처효율성간의 상호작용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R^2 = .093$, $p < .05$)과 직접적 통제와 자기비난의 상호작용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R^2 = .115$, $p < .01$). 이러한 결과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난 모형에서 직접적 통제 정도가 중앙치(median)보다 낮은 하위 집단을 직접

〈표 1〉 직접적 통제가 부모갈등과 아동의 부적응을 중재하는 효과

부적응 수준 (KPI-C)	기본모형 ¹⁾ 의 R ²	CPIC 부모 갈등 특성과 직접적 통제의 상호작용효과가 추가된 모형 ²⁾ 의 R ²			
		직접적 통제 × 갈등강도	직접적 통제 × 대처효율성	직접적 통제 × 지각된 위협	직접적 통제 × 자기비난
내재화 문제	.077	.084 F ³⁾ =2.40 p=.12	.093 F=5.35 p=.02	.084 F=2.30 p=.13	.077 F=.11 p=.75
외현화 문제	.095	.097 F=.72 p=.40	.095 F=.002 p=.97	.099 F=1.49 p=.22	.115 F=6.92 p=.01

1) KPI-C = 갈등강도 + 대처효율성 + 지각된 위협 + 자기비난 + 직접적 통제

2) KPI-C = 갈등강도 + 대처효율성 + 지각된 위협 + 자기비난 + 직접적 통제 + 상호작용항

3) F 는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형의 R² 에서 기본모형의 R²를 뺀 잔여 R²에 대한 유의도 검증임.

적 통제 - 저 집단으로, 중앙치보다 높은 상위 집단을 직접적 통제 - 고 집단으로 나눈 후, 두 집단 각각에 대하여 부모갈등 특성(여기서는 대처효율성과 자기비난)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심리적 부적응 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의 회귀방정식은 표

2에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산출된 회귀방정식에 부모갈등의 임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대입한 후 계산된 결과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작도하였다(그림 1과 그림 2). 대처효율성과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를 직접적 통제의 수준별로 살펴보면, 대처효율성이

〈표 2〉 갈등 특성에 따른 직접적 통제 집단의 부적응 수준

종속변인 (KPI-C)	독립변인 (갈등특성)	직접적 통제 집단	
		저(1.00)	고(3.00)
내재화 문제	대처효율성	$y=48.235+(-.167)X^1$	$y=41.389+2.888X$
		$y(x=1)=48.07^{2)}$	$y(x=1)=44.28$
		$y(x=3)=48.74^{3)}$	$y(x=3)=50.05$
외현화 문제	자기비난	$y=47.930+(-.291)X$	$y=36.082+6.881X$
		$y(x=1)=47.64$	$y(x=1)=42.96$
		$y(x=3)=47.06$	$y(x=3)=56.73$

1) 회귀방정식

2) 부모갈등의 최하점수인 1을 회귀방정식에 대입했을 때의 종속변인의 점수

3) 부모갈등의 최고점수인 3을 회귀방정식에 대입했을 때의 종속변인의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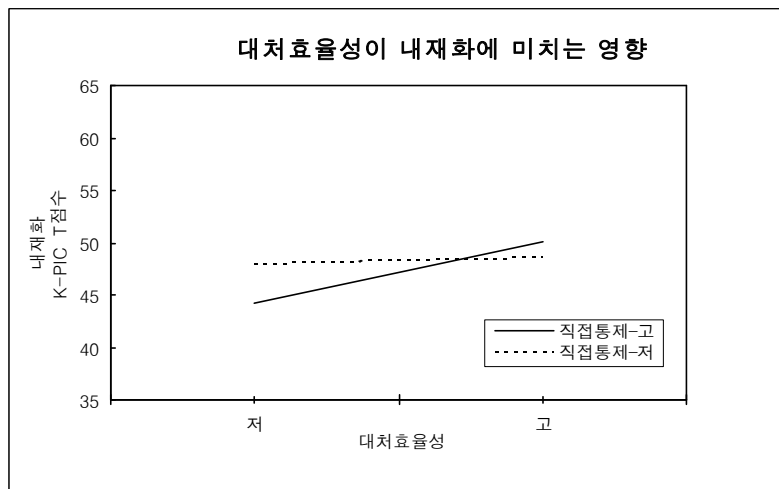


그림 1. 직접적 통제 집단의 대처효율성과 내재화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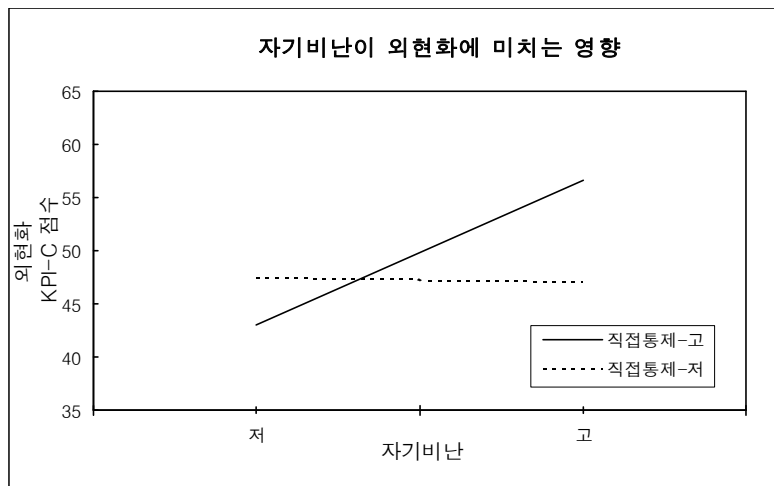


그림 2. 직접적 통제 집단의 자기비난과 외현화의 효과

증가할 때 직접적 통제-저 집단의 경우 내재화 문제에 변화가 없었으나, 직접적 통제-고 집단의 경우에는 내재화 문제가 증가하였다(그림 1). 또, 자기비난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기비난이 증가할 때 직접적 통제-저 집단의 경우 내재화 문제에 변화가 없었으나, 직접적 통제-고 집단은 외현화 문제가 증가하였다(그림 2).

감정통제

다음으로, 부모갈등 하에서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절차는 앞서 직접적 통제의 분석절차와 동일하다. 아동에게 지각된 부모갈등과 부모갈등에 따른 감정통제의 유지가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

〈표 3〉 감정통제가 부모갈등과 아동의 부적응을 중재하는 효과

부적응 수준 (KPI-C)	기본모형 ¹⁾ 의 R ²	CPIC 부모 갈등 특성과 감정통제의 상호작용효과가 추가된 모형 ²⁾ 의 R ²			
		감정통제 × 갈등강도	감정통제 × 대처효율성	감정통제 × 지각된 위협	감정통제 × 자기비난
내재화 문제	.077	.080 F ³⁾ =.91 p=.34	.093 F=5.57 p=.02	.087 F=3.50 p=.06	.077 F=.07 p=.79
외현화 문제	.098	.099 F=.25 p=.62	.099 F=.25 p=.62	.105 F=2.23 p=.14	.115 F=5.72 p=.02

1) KPI-C = 갈등강도 + 대처효율성 + 지각된 위협 + 자기비난 + 감정통제

2) KPI-C = 갈등강도 + 대처효율성 + 지각된 위협 + 자기비난 + 감정통제 + 상호작용항

3) F 는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형의 R² 에서 기본모형의 R²를 뺀 잔여 R²에 대한 유의도 검증임.

증하기 위해 기본모형과 추가모형의 R²을 산출한 뒤에 R²의 유의도를 제시하였다(표 3).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여 아동의 감정통제 수준에 따라 부모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먼저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후 R²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의 갈등에 대한 아동의 감정통제와 대처효율성의 상호작용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R²= .093, $p<.05$), 감정통제와 자기비난의 상호작용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R²= .115, $p<.05$)이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

〈표 4〉 갈등 특성에 따른 감정통제 집단의 부적응 수준

종속 변인 (KPI-C)	독립 변인 (갈등특성)	감정통제 집단	
		저(1.00)	고(3.00)
내재화 문제	대처효율성	$y=48.327+(-.407) X^{1)}$	$y=39.175+(-4.249) X$
		$y(X=1)=47.92^{2)}$	$y(X=1)=34.93$
		$y(X=3)=47.11^{3)}$	$y(X=3)=51.92$
외현화 문제	자기비난	$y=43.488+2.510 X$	$y=38.575+5.407 X$
		$y(X=1)=46.00$	$y(X=1)=43.98$
		$y(X=3)=51.02$	$y(X=3)=54.80$

1) 회귀 방정식

2) 부모 갈등의 최하점수인 1을 회귀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의 종속변인의 점수

3) 부모 갈등의 최하점수인 3을 회귀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의 종속변인의 점수

보기 위해, 감정통제와 갈등강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모형에서 감정통제가 중앙치보다 낮은 하위 집단을 감정통제-저 집단으로, 중앙치보다 높은 상위 집단을 감정통제-고 집단으로 나눈 후, 두 집단 각각에 대하여 부모갈등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심리적 부적응 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

석을 시행한 후의 회귀방정식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산출된 회귀방정식에 부모갈등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대입한 후 계산된 결과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작도하였다(그림 3과 그림 4). 대처효율성과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를 감정통제의 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대처효율성이 증가할 때 감정통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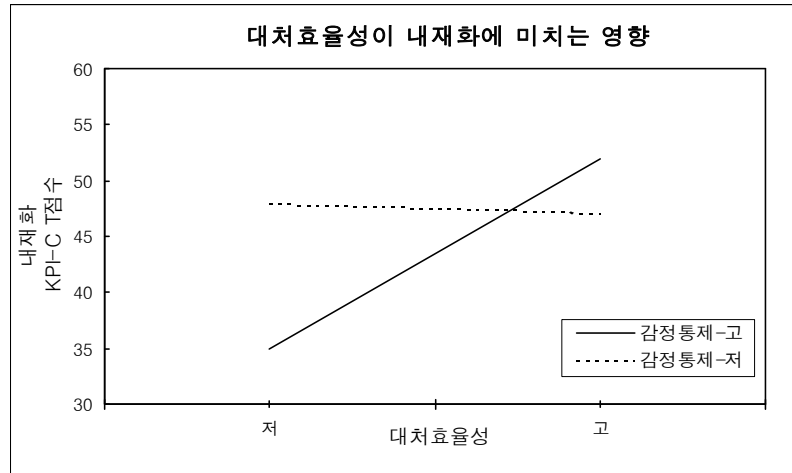


그림 3. 감정통제 집단의 대처효율성과 내재화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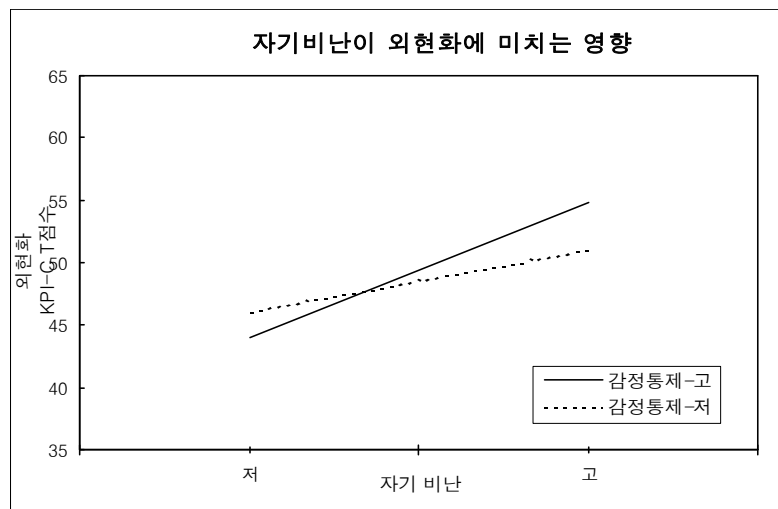


그림 4. 감정통제 집단의 자기비난과 외현화의 효과

집단에서는 내재화 문제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으나 감정통제 - 고 집단은 내재화 문제가 증가하였다(그림 3). 즉, 감정통제가 높은 집단일수록 대처효율성의 증가에 따라 내재화 문제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또, 자기비난과 외현화 문제와의 관계를 감정통제의 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자기비난이 증가할 때 두 집단 다 외현화 문제의 증가를 보였으나 감정통제 - 저 집단에 비해 감정통제 - 고 집단에서 더 큰 증가를 보였다(그림 4).

자아탄력성에 따른 부모갈등과 아동의 부적응

다음으로, 부모갈등 하에서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절차는 앞서의 갈등통제 신념(직접적 통제와 감정통제)에 대한 분석절차와 동일하다. 여기서도 KPI-C의 내재화 변인과 외현화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CPIC에서 유도된 갈등의 강도, 자기비난, 지각된 위협, 대처효율성 등 4개의 부모갈등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을 중

재변인으로 하여 중재모형을 검증해 보았다. 여기서도 위계적 회귀분석 과정을 통하여 기본모형과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모형을 추가모형으로 설정하여 두 모형간의 설명력(R^2)의 차이검증 과정을 거쳤다. 그러한 절차를 통해 중재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가 검증된 모형만을 대상으로 조절효과의 방향성을 검증하였다. 조절효과의 방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중재변인인 자아탄력성의 수준에 따라 피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 각 집단에 대하여 부모갈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부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아동의 자아탄력성 수준에 따라 부모 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한 후 R^2 차이검증을 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제시한 것처럼 독립변인과 중재변인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R^2)가 2개 항에서 검증되었다. 즉, 자아탄력성과 갈등 강도의 상호작용이 외현화 문제에

표 5. 자아탄력성이 부모갈등과 아동의 부적응을 중재하는 효과

부적응 수준 (KPI-C)	기본모형 ¹⁾ 의 R^2	CPIC 부모 갈등 특성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추가된 모형 ²⁾ 의 R^2			
		자아탄력성 × 갈등강도	자아탄력성 × 대처효율성	자아탄력성 × 지각된 위협	자아탄력성 × 자기비난
내재화 문제	.330	.336 F ³⁾ =2.83 p=.09	.330 F=.06 p=.80	.336 F=2.96 p=.09	.335 F=2.39 p=.12
외현화 문제	.340	.349 F=4.86 p=.05	.343 F=1.43 p=.23	.353 F=6.15 p=.01	.346 F=2.88 p=.09

1) KPI-C = 갈등강도 + 대처효율성 + 지각된 위협 + 자기비난 + 자아탄력성

2) KPI-C = 갈등강도 + 대처효율성 + 지각된 위협 + 자기비난 + 자아탄력성 + 상호작용항

3) F 는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형의 R^2 에서 기본모형의 R^2 를 뺀 잔여 R^2 에 대한 유의도 검증임.

표 6. 갈등특성에 따른 자아탄력 집단의 부적응 수준

종속변인 (KPI-C)	독립변인 (갈등특성)	자아탄력 집단	
		저(1.00)	고(3.00)
외현화 문제	갈등강도	$y=42.713+5.739 X^{1)}$ ($y=1$)=48.45 ²⁾ ($y=3$)=59.93 ³⁾	$y=39.739+3.028 X$ ($y=1$)=42.77 ($y=3$)=51.85
	지각된 위협	$y=42.564+3.813 X$ ($y=1$)=46.38 ($y=3$)=54.00	$y=41.360+1.228 X$ ($y=1$)=42.59 ($y=3$)=45.05

1) 회귀 방정식

2) 부모 갈등의 최하점수인 1을 회귀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의 종속변인의 점수

3) 부모 갈등의 최하점수인 3을 회귀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의 종속변인의 점수

미치는 영향($R^2 = .349$, $p < .05$)과, 자아탄력성과 지각된 위협의 상호작용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R^2 = .353$, $p < .01$)이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난 항에 대하여 자아탄력성이 중앙치보다 낮은 하위 집단을 자아탄력 - 저 집단으로, 중앙치보다 높은 상위 집단을 자아탄력 - 고 집단으로 나눈 뒤에, 각각 두 집단에 대하여 부모갈등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수준을 종속변인으로 분류한 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수행한 후의 회귀방정식은 표 6에 제시하였다. 이 결과를 시각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산출된 회귀방정식에 부모 갈등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대입한 후 계산된 결과를 이용하여 그래프로 제시하였다(그림 5와 그림 6). 부모갈등의 강도가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그림 5)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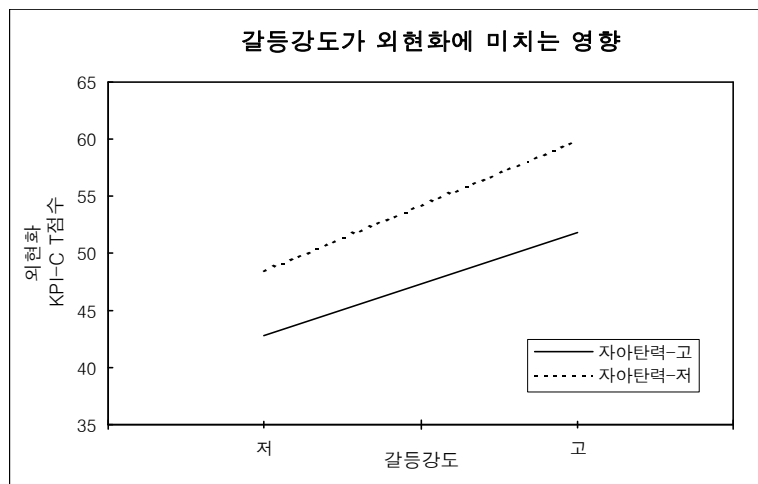


그림 5. 자아탄력 집단의 갈등강도와 외현화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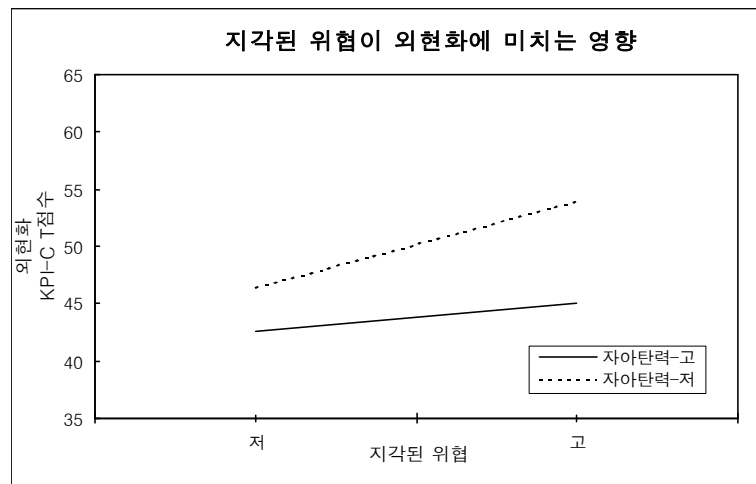


그림 6. 자아탄력 집단의 지각된 위협과 외현화의 효과

살펴보면, 부모갈등의 강도가 증가할 때 자아탄력 - 고 집단과 자아탄력 - 저 집단 모두에서 외현화 문제가 증가하였으나, 자아탄력 - 저 집단이 자아탄력-고 집단에 비해서 더 높은 증가를 보였다. 또, 자아탄력 집단에게 지각된 위협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그림 6)을 살펴보면, 지각된 위협이 증가할 때 자아탄력 - 저 집단은 외현화 문제가 뚜렷하게 증가했으나, 자아탄력 - 고 집단은 외현화 문제의 증가가 거의 없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에게 지각된 부모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아동의 갈등통제 신념과 자아탄력성이 중재변인으로 작용하는지 검증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모 갈등에 대한 아동의 직접적 통제와 대처효율성의 상호작용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직접적 통제와 자기비난의 상호작용이 외현화 문

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둘째, 부모갈등에 대한 아동의 감정통제 수준과 갈등대처 효율성의 상호작용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감정통제 수준과 자기비난의 상호작용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셋째, 아동에게 지각된 부모갈등의 강도와 지각된 위협이 자아탄력성에 의해 중재되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었다.

먼저, 부모 갈등에 대한 아동의 직접적 통제와 대처효율성의 상호작용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직접적 통제와 자기비난의 상호작용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해서 분석해본 결과 대처효율성이 증가할 때 직접적 통제 - 저 집단의 경우 내재화 문제에 변화가 없었으나, 직접적 통제 - 고 집단의 경우에는 내재화 문제가 증가하였다. 또, 자기비난이 증가할 때 직접적 통제 - 저 집단의 경우 외현화 문제에 변화가 없었으나, 직접적 통제 - 고 집단은 외현화 문제가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갈등상황에서 대처효율성이 높다고 지각하는 직접적 통제수준이 높은 아동은 내재화

의 문제가 증가하지만 직접적 통제수준이 낮은 아동들은 대처효율성이 낮다고 지각하건 높다고 지각하건 내재화 문제의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부모갈등에 대한 자기비난이 높은 아동은 부모의 갈등에 아동이 직접 개입하였음에도 (직접적 통제) 갈등통제에 실패함으로써 자기비난이 증가되어 외현화 문제가 상승하는 반면 직접적 통제의 수준이 낮은 아동은 자기비난을 많이 하건 그렇지 않건 외현화 문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아동은 무엇 때문에 그리고 누구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갈등의 원인을 아동자신이라고 지각하게 될 경우 부적응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Grych & Fincham, 1990).

한편, 부모갈등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와 갈등 통제감에 관한 Rossman과 Rosenberg(1992)의 연구는 갈등통제감이 스트레스에 보상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행동문제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통제감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행동문제를 증가시키는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혀냈다. 즉, 갈등통제의 실패가 아동으로 하여금 상황에 대한 통제력의 실패를 아동 내부로 돌림으로 인해 비행 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부모갈등에 대한 통제감이 낮은 집단은 갈등의 빈도와 자기비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응수준의 변화가 없는데 비하여, 통제감이 높은 아동은 자기비난이 증가할수록 높은 외현화 문제를 보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본 연구결과는 아동이 부모갈등을 통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경우 적응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할 뿐더러 갈등 통제에 자신감을 잃어 행동문제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Rossman과 Rosenberg(199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부모갈등에 대한 아동의 감정통제 수준과 갈등대처 효율성의 상호작용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감정통제 수준과 자기비난의 상호작용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이를 세분화해서 분석해본 결과 대처효율성이 증가할 때 감정통제 - 저 집단에서는 내재화 문제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으나 감정통제 - 고 집단은 내재화 문제가 증가하였다. 또, 자기비난이 증가할 때 두 집단 모두에서 외현화 문제의 증가를 보였으나 감정통제 - 저 집단에 비해 감정통제 - 고 집단에서 더 큰 증가를 보였다.

부모갈등 맥락에서 아동의 감정통제는 심리적 안정감의 유지를 통해 적응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이 감정통제 수준을 조절한다는 것은 부모갈등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과 얼마간 공유되는 개념인데, 갈등을 실제로 조절할 수 있는 통제력을 아동이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 현재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해주어 갈등 상황에 아동이 과도하게 함입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다. 즉, 아동은 객관적 시각을 지닌 제 3자의 입장에서 판단함으로써 부모갈등의 원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며, '부모님의 일'이라는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감정통제가 높은 집단은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충시켜 적응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감정통제가 높은 집단이 대처효율성의 변화에 따라 내재화 문제의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아동이 부모의 갈등상황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고, 갈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갈등상황에 개입하려는 태도가 증가함에도 부모의 사과나 화해 등의 갈등 해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갈등에 대한 감정적인 통제가 감소하고 부적응 문제가 증가하는 결

과를 보이게 된다. 즉, 통제감이 낮은 아동의 경우 그러한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지만, 갈등통제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갈등상황과의 분리가 불가능해짐으로 인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기 어려워 적응상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짐작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감정통제 수준이 높은 집단은 대처 효율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 불안, 신체화를 포함하는 내재화 문제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적절한 대처에 실패할 때 내재화 문제가 발견되고, 자기비난이 높은 집단일수록 비행, 과잉행동의 외현화 문제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자아탄력성은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하고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환경적 요구에 맞추어 적절하게 적응하고 조절하는 등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Block & Kremen, 1996). 따라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부모갈등이라는 난관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적응을 하는 역할을 한다.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고 위험 상태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적응을 보이는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절한 능력(competence)을 발휘하는 경우, 외상적 생활경험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졌다(O'Dougherty, Wright, & Masten, 1997). 부모의 갈등 상황이라는 맥락에서도 적절한 적응을 보이는 아동이라면 자아탄력성이 높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해진다.

아동에게 지각된 부모갈등의 강도와 지각된 위협이 자아탄력성에 의해 중재되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특히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들에게서 부모 갈등에 대한 책임을 아동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심리적 부적응이 증가하며, 또한, 부모갈등이 심할수록, 부모의 갈등이 빈번할수록, 아동과 관련된 문제로 다툼이 생길수록,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을수록 심

각한 부적응 문제, 특히 외현화 문제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부모갈등의 강도와 위협 수준이 증가하더라도 부적응 문제가 나타나지 않거나 약하게만 나타남을 보여주는 본 연구결과는 자아탄력성이 개인의 적응을 위협하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잠정적인 적응상태로 전환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기제라고 한 Rutter(1990)의 설명을 뒷받침한다. 지각된 부모갈등의 강도와 아동의 부적응 간의 관계는 박수잔(1997), Cummings과 Davies(1994), Grych과 Fincham(1990), Grych 등(1992), Kerig(1998), Osborne과 Fincham(1996)등 다양한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이 중재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갈등과 아동의 부적응 간의 관계에 아동의 통제신념과 자아탄력성이 중재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서 확인된 다른 다양한 중재변인들, 예컨대 사회경제적 지위, 문제해결 기술, 사회적 지지, 일반지능, 신체적 조건, 학업 성적 등(Fergusson & Lynsky, 1996)의 효과를 함께 고려할 때 부모갈등과 아동의 부적응 간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지각되는 부모갈등의 특성에 근거하여 부모의 갈등수준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부모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이해 수준이 아동의 부적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이 보고하는 부모갈등의 수준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생활여건상 부모간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갈등특성이나 정도를 과소평가하게 되고, 실제 부모갈등의 양상과는 다르게 평가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갈등에 대한 아동 보고와 더불어 부모의 직접적인 평가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수집,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4, 5, 6학년생을 대상으로만 연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아동, 청소년기 연령 전체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아동기에서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타인들의 갈등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태도가 증가하고 초기성인기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태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있는 점(Cummings et al., 1991)을 감안해 볼 때 보다 폭넓은 연령을 대상으로, 또는 종단적으로 자료를 수집,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아동의 부적응 수준을 부모평정(KPI-C)에만 의존하여 평가하였기 때문에 김만권, 황순택, 이혜련(1997), Bird, Gould, 및 Staghezza(1992), Reich와 Earls(1987) 등이 지적한 것처럼 내재화 문제가 다소간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동의 자기보고, 임상가의 직접 관찰 등 보다 다양한 경로로 자료를 수집,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구형모, 황순택 (2001). CCQ 자아탄력척도와 자아통제척도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 345-358.
- 권영옥, 이정덕 (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 65-80.
- 김만권, 황순택, 이혜련(1997). 아동청소년 정신병리: 진단별 주요 증상. *정신건강연구*, 1997, 214-234.
- 김승태, 김지혜, 송동호, 이효경, 주영희, 홍창희, 황순택 (1997). *한국 아동인성검사*. 서울: 한국 가이던스.
- 박수잔 (1997).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nd, E. B., & Weisz, J. R. (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 Children's perspectives on coping with everyda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47-253.
- Bandura, A. (1973). *Aggression : A Social Learning Approac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ird, H. R., Gould, M. S., & Staghezza, B. (1992). Aggregating data from multiple informants in child psychiatry epidemiological research,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31, 78-85.
- Block, J. (1978). The Q-sort method in personality assessment and psychiatric research.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61).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Vol. 13, pp.39-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 Gjerde, P. F. (1990). Depressive symptoms in late adolescence :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personality antecedent. In J. Rof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euchterlein, & S. Weintaub(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pp. 334-360).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89). Behavior and satisfaction in marriage : Prospective mediating processe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 119-143.
- Cohen, J., & Cohen, P. (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Ed. 2nd), Lawrence Erlbaum associations.
- Cohen, L. H., Burt, E., & Bjorck, J. P. (1987). Life stress and adjustment : Effects of life events experienced young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583-592.
- Compas, B. E.,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3), 393-403.
- Connell, J. P. (1985). A new multidimensional measure of children's perceptions of control. *Child Development*, 56, 1018-1041.
- Cummings E. M & Davies, P. T.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411.
- Cummings, E. M., Ballard, M., El-Sheikh, M., & Lake, M. (1991). Resolution and child's responses to intradulthood ang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62-470.
- Cummings, J. S., Pellegrini, D. S., Notarius, C. I., & Cummings, E. M. (1989). Children's responses to angry adult behavior as a function of marital distress and history of interparent hostility. *Child Development*, 60, 1035-1043.
- Dunn, J., & Munn, P. (1985). Becoming a family member: Family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understanding in the second year. *Child Development*, 56, 480-492.
- Emery, R., & Forehand, R. (1993). Parental divorce and children's well-being : A focus on resiliency. In R. J. Haggerty, N. Garnezy, N. Rutter, & L.R. Sherrod(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rgusson, D. M., & Lynsky, M. T. (1996). Adolescent Resiliency to family adversit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7(3), 281-292.
- Funder, D. C., & Block, J. (1989). The role of ego-control, ego-resiliency, and IQ in delay of gratificat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41-1050.
- Garnezy, N., Masten, A. S., & Tellegen, A. (1984). The study of stress and competence in children ; a building block f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Development*, 55, 97-11.
- Garnezy, N. (1991). Resilience in children's adaptation to negative life events and stressed environments. *Pediatric Annals*, 20(4), 462-466.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H., & Fincham, F. D. (1993). Children's appraisals of interparental conflict :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 215-230.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Jenkins, J. M., Smith, M. A., & Graham, P. J.

- (1989). Copying with parental quarrel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8, 182-189.
- Jenkins, M., & Smith, M. A. (1990). Factors protecting children living in disharmonious homes : maternal repor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8, 182-189.
- Johnson, P. L., & O'Leary, K. D. (1987). Parental behavior patterns and conduct disorders in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573-581.
- Kelly, J. B., (1998). Marital conflict,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7(2), 259-271.
- Kerig, P. K. (1998). Moderators and mediators of effects of Interparental conflict on children's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3), 199-212.
-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600-616.
- Luthar, S. S., & Zigler, E. (1991). Vulnerability and competence : A view of research on resilience in childhood.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1, 6-22.
- Masten, A. S., Garmezy, N., Tellegen, A., Pellegrini, D. S., Larkin, K., & Larsen A. (1988). Competence and stress in school children : the moderating effects of individual and family qualit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Psychiatry*, 29, 745-764.
- Mischel, W., Shoda, Y., & Peake, P. K. (1988). The nature of adolescent competencies predicted by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687-696.
- Neighbors, B., Forehand, R., & McVicar, D. (1993). Resilient adolescents and interparental confli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3(3), 462-471.
- O'Dougherty, M., Wright, F. S., & Masten, A. S. (1997).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In Young Children. In J. D. Noshpitz, S. Greenspan, S. Wieder, & J. Osofsky(Eds.). *Handbook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pp. 202-224). New York : John Wiley & Sons.
- Osborne, L. N., & Fincham, F.D. (1996).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 and child adjustment : Does gender matter? *Merrill Palmer Quarterly*, 42, 48-75.
- Perry, B. D., Pollard, R. A., Blakley, T. L., Baker, W. L., & Vigilante, D. (1995). Childhood trauma, the neurobiology of adaptation, and "use dependent" development of the brain : How "states" become "trait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6 (4), 271-291.
- Reich, W., & Earls, F. (1987). Rules for making psychiatric diagnosis in children on the basis of multiple sources of information: preliminary strategies, *J Abnorm Child Psychol*, 15, 601-616.
- Richman, N., Stevenson, J. & Graham, P. J. (1982). Pre-school to School. A Behavioral Study. London : Academy Press.
- Rossmann, B. B. R., & Rosenberg, M. S. (1992). Family stress and functioning in child : The moderating effects of children's Beliefs about their control over parental conflic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3, 699-715.
- Rutter, M. (1990).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In J. Rolf, A. Masten, D. Cicchetti, K. Nuechterlein, & S. Weintraub(Eds.). *Risk*

-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pp.181-214).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tter, M., Yule, B., Quinton, D., Rowlands, O., Yule, W., & Berger, M. (1975). Attainment and Adjustment in two geographical area.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6, 520-533.
- Sandler, I. N., Wolchick, S. A., & Braver, S. L. (1985). Social support and children of divorce. In I. G. Sarason & B. R. & Sarason (Eds), *Social Support :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pp.371-389. Boston : Martiuus, Nijhoff.
- Spielberger, C. (1979). *Understanding stress and anxiety*. New York : Harper and Row.
- Thompson, S. C. (1981). Will it hurt less if I can control it? A complex answer to a simple question. *Psychological Bulletin*, 90, 89-101.
- Wertlieb, D., Weigel, C., & Feldstein, M. (1989). Stressful experiences, temperament, and social support: impact on children's behavior symptom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 Psychology*, 10, 467-503.

원 고 접 수 일 : 2002. 12. 3
수정원고접수일 : 2003. 3. 18
게 재 확 정 일 : 2003. 4. 1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effects of children's control belief and ego-resiliency

Kim, Yun-Hui

Department of Psychiatry
Yonsei University

Hwang, Soon-Tae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hildren's belief in conflict control and ego-resiliency on their maladjustment under their parent's conflicts. Data of 1) severity of parent's conflict, parent's effectiveness of conflict coping, children's feeling of threat, and children's self-blame perceived by children in CPI-C, 2) children's belief of conflict control in DCCQ, 3) ego-resiliency in CCQ ego-resiliency scale, and 4) maladjustment level in KPIC rated by one of their parents were analysed by hierarchical regressions and difference tests of R^2 .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teraction effects of direct control and coping efficacy influenced to internalized problem and externalized problem; 2) Interaction effects of self-calming and coping efficacy influenced to internalized problem. Self-calming and self-blame influenced externalized problem; 3) Interaction effects of ego-resiliency and conflict intensity, and interaction effects of ego-resiliency and perceived threat influenced to externalized problem. This results show the effects of children's belief in conflict control and their ego-resiliency as moderate variables on their maladjustment under their parent's conflicts.

Keywords : parental conflict, internalized problem, externalized problem, control belief, ego-resiliency